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10

월은 스님(봉선사 조실·동국역경원장) / 능엄경(11월 25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논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불교의 종합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강조한 것 중 내 힘으로 뛰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계율인데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계율을 두 어깨에 잘 짊어지고 나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열반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뛰어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믿고 수행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능엄주라 합니다. 능엄주를 믿고 외우면서 부처님이 나를 바래주시길 라고 믿고, 부처님 가피력으로 능엄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계율을 잘 닦고, 사마타 삼마 삼나 즉, 정과 혜를 균등하게 닦고, 그리고 능엄주를 외워서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형태든지, 어떤 경계에 가든지 무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도 경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맞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을 잡으려고 맞붙었다가 신체에 해를 입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둘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둑이 왔으면 자는 체 하며 살피다가 기회가 왔을 때 버럭같이 뒤통수를 쳐서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공부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많은 불자들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게 병이에요. 삼천배를 하면서도 용심(用心)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전 많이 읽고, 불사에 동참 많이 하면서도 마음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에 치중해서 무한한 경지를 포용하고,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얼마쯤 가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능엄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하루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불자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점에 서서 나는 왜 불자인가, 나는 왜 불자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힘이 생기고, 때려죽일 힘을 만났어도 때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체험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능엄경 제7권 후반에 '증과분'이라 하여 경초의 네 가지 물음 중 셋째 선나에 답하신 법문이 있는데 이를 교가에서는 증과분이라 하여 51단계의 깨달음 세계를 소개해 주셨거나와 나는 감히 주장하노니 이 어리석은 범부가 부처님께 매달리다가 한 생각 쓸 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범부성불 눈높이성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에 오래 다니고 웬만큼 기도를 했다는 불자들이라도 제대로 감정 관리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알다보니 공부가 좀 됐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이 최초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마음에 걸리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가 한 공부에 속아서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구니의 모습이 더 진하고 강하게 옵니다. 이것을 일러 도고마상(道高魔盛) 즉,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도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퀴 말하면 마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부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변마장, 다시 말해 마구니가 50종이라는 얘기인데, 왜 50마나 하면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五蘊)인데 오온 하나하나가 공부과정입니다. 본래 맑았던 여래장에서 한 생각 미혹할 때에 식음(識陰)이 생기고, 상음(想陰)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색음(色陰)이 생긴 것입니다. 식음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색음

별 마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140마에 나오는 말 중 공통된 것이 있는데, "마구니가 불은 걸 모르면 큰 탈이 나지만 알면 수행에 도움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마구니가 불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도둑'을 맞고, '도둑'이 왔다는 것을 알면 적당 한 시기에 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말은 도둑이 온 것을 알 수 있도록 늘 청기라는 뜻입니다. 일이 바로 사마타 삼마 삼나를 잘 간직하기 위한 최초의 기능이에요.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을 마감할 무렵 즈음해서 주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면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어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해관계는 나에게 있는 법입니다. 이해관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평소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것을 고치고 나가는 힘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신념입니다. 계를 설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계를 받은 뒤에 계를 잘 지키고, 계 설해 준 사람, 즉 계사를 닦으라는 뜻입니다. <능엄경>의 뜻과 한 이야기는 계를 받으면서 이어집니다.

그동안 '봉선사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강설대법회에서 9명의 법사님들이 법문을 하셨는데 공통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홀리는 것이 많지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들이 설해도 겁날 것이 없다" 이렇게 지키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계라는 말씀입니다.

능엄경 제10권에 '실제지(實際地)에는 불수일진(不受一塵)이나 불사문중(佛事門中)에는 불사일법(不捨一法)'이라 하셔서, 경 전체를 간추린 말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리자리에는 먼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부분에서는 한 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청정한 여래장자리에는 원래 무명이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생긴 뒤에는 너와 내가 생겼는데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지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능엄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있고 온 '고향', 가아람 '고향'이 분명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계 받는 일이고, 계를 받은 뒤에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면 분명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민 기자

불자들 아는 게 너무 많아 '병'...마음관리 필요
자랑하는 불교 말고 가르침 생활속에 구현하길

최초방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초의 네 번째 물음, 최초방편에 답하신 '변마장(辨魔障)'이라고 해서 마구니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만큼 마구니가 드세진다는 것입니다.

돈 싹쓸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마구니가 와서 자꾸 유혹합니다. 비위에 거슬리게 달려드는 마구니는 역마라 해서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마는 훌쩍 반하게 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마의 지옥이나 육체의 괴로운 모습을 보이고 마의 처참한 모습을 일러주어서 모든 수행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해나가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공부가 잘 보인다고 하고 자만하지 말고, 이게 마구니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도영험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여기에 훌쩍 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최초방편이 왜 최초방편이나 하면 공

까지 생겼지만, 풀어나갈 때에는 색음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몸뚱이부터 길들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색음이 몸뚱이인데, 색음을 통제해나가는 데는 계(戒)밖에 없어요. 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체질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힘을 계체(戒體)라고도 하고, 계향(戒香)이라고도 합니다.

맨 먼저 색음을 높이고, 수음, 내지 식음까지 때려눕히면 마치 새끼의 동냥하늘처럼 환한 빛이 난답니다. 우리가 예불할 때 제향 정향 해향 하는 데, 제향(戒香)은 색음(色陰)을 때려눕힌 사람에게서 나는 향이고, 정향(定香)은 수음(受陰)을, 해향(慧香)은 상음(想陰)을, 해탈향(解脫香)은 행음(行陰)을,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식음(識陰)을 때려눕힌 뒤에 생기는 향이에요.

오음(五陰)마다에 10가지씩의 마구니가 있어서 합하면 50가지인데 상음마에는 또 100가지가 있어요. 다 따져보면 140마나 되는 엄청난 마가 있어서 별의

질의

자력·타력은 상부상조 관계

질문 <능엄경>은 우리 중생 누구나가 본래 갖추고 있는 여래장(如來藏)의 묘진 여성(妙眞如性)을 드러내주는 경이라고 설하시면서 신심을 닦고 계율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능엄주를 권하면서 신주력(神呪力)의 가치가 구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얼핏 이 두 부분이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월은 스님 일부 상근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거나 스스로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되풀아 가려는 희망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근기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접근해서 체험을 얼마만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능엄주의 경우 내 본래부처를 찾는 일에 부처님의 신력을 빌어 찾겠다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만으로는 이

해가 되지 않아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믿는 것은 중요 합니다. 능엄주를 읽 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움직여 부처님 법에 이끌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정신집중을 하는 데에만 위신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병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병을 알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가 부처님 진리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력에도 타력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타력에도 자력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력에 의해 타력을 빛내고, 타력에 의해 자력을 빛낼 수 있습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800여 불자들 '戒' 지키는 삶 다짐

강설대법회, 수계법회로 회향

월은 스님의 <능엄경>을 주제로 한 법문에 이어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산림이 해인총림 울린장 무관 스님을 계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무관 스님은 "정직하고 모한 계를 받는 것은 믿음을 갖겠다는 다짐이며, 이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모체가자 선의 뿌리를 기르는 것"이라며 보살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수계산림에 참석한 800여 불자들이 호혜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외는 가운데 연비의식(사진)이 진행되면서

봉선사 설법전은 연비향으로 장엄됐다. 연비의식이 끝나고 난 뒤 무관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보살계를 수지했음을 알리며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팔지 말라는 등의 '십중대계(十重大戒)'를 하나하나 불렀고, 불자들은 이 열 가지 계를 받아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사찰방범법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장
혜철 스님이 감시 카메라의 가격을
확실히 내리고 전국 서비스망
구축과 함께 전국 사찰방범을
시작합니다!

**가격만족
확실한 서비스**

사찰방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화문의
043-732-5560
011-9422-8453

자동 움직임 탐지
주야간 감시 및 녹화
자동 경보음 발생
빠른 탐색 및 편집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품평한 시공

년회원 가입 시
정기점검 실시
(케이블보수, 기기 청소, 작동점검)

~ 알려드립니다 ~
직접방문하여 제품의 설명과
비교평가 및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 시공을 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장
(www.dss.or.kr, cafe.daum.net/dasungsa)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특별법회 봉행 옥천대성사

연도시스템